

지역별 노동공급 추이 및 시사점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문제제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사람이 하는 단순 업무에서부터 인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가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우리나라 경제에 고착화되어 왔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고용감소 성장(job-loss growth)’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경제에 부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은 노동시장에서 가계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노동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가계의 노동공급이 증가해도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고용량은 감소하며,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해도 가계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고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송상윤·배기원(2022)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상, 즉 노동공급 확대 현상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인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으며, 연령대별로 노동공급 확대에 미친 구조적 요인을 살펴본 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및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 보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이들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¹⁾,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참

1) 연령대는 청년층(15~29세),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고령층(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2010~2015년과 2015~2022년 중 변화를 분석하였음.

가울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요인을 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은 고학력자 비중 상승,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재정적 사유,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 등 소득·자산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승배(2022)는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여성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제주지역 여성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여성 니트(NEET)²⁾ 및 유형,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살펴본 후 여성 인적자본의 높은 유희화 수준에 대한 예방, 여성 일자리의 안정성 강화, 여성 일자리의 산업별 및 직업별 다변화, 여성 니트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편입,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등 제주 지역 여성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전국 및 16개 시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하여 노동공급 확대 여부를 전국과 제주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공급의 확대 여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노동공급의 수준, 변화 및 수준과 변화를 종합하여³⁾ 지자체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연령대별 노동공급

경제활동참가율은 군인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⁴⁾ 일하고자 하는 사람(노동공급)이 많아지면 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공급을 살펴보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2)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세~39세 청년층

3)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선정(selection of indicators), 표준화(standardization or normalization) 및 종합화(aggregation)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본고에서 표준화는 십분위간 표준화(inter-decile range standardization) 방법을 이용하고 종합화는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는데 강기춘(2019)은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4)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취업자} + \text{실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표 1〉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및 16개 시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⁵⁾ 및 2022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한 노동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연령대별 및 지자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노동공급 확대 양상은(〈그림 1〉 참조) 연령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핵심노동연령층(30~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4.9%p 증가함으로써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0.9%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는 고령층 대비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2021년 중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4.7%p 증가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4.9%p) 대비 약간 낮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0.9%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노동공급 확대 양상은(〈그림 1〉 참조) 연령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과 하락을 하였으나 2022년에 2015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19년부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5.0%p 증가함으로써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1.4%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2.2%p 증가함으로써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5.0%p)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노동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1.4%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표 1〉에 있는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지자체별로 비교한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이 5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53.7%), 인천(5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48.8%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5) 2015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2015년을 0으로 하였음.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이 7.9%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7.6%p), 대전(7.1%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2.2%p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노동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주가 8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82.7%), 충북(8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남이 2.1%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1.9%p), 전북(1.8%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1.4%p로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주가 5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58.5%), 경북(5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원이 10.0%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9.6%p), 충북(9.2%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5.0%p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2015년 대비)

(단위 : %p, 2015=0)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전국	청년층(15-29세)	1.0	1.3	1.8	2.5	1.0	2.6	4.7	50.1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1	0.6	0.8	0.7	-0.2	0.0	0.9	79.0
	고령층(60세 이상)	0.5	1.0	1.4	2.9	4.0	4.5	4.9	45.0
서울	청년층(15-29세)	1.3	2.1	3.0	3.7	2.9	7.2	7.6(2)	56.0(1)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1	0.8	0.7	0.5	0.3	0.3	1.3(6)	78.9(9)
	고령층(60세 이상)	0.0	1.1	0.1	2.0	2.1	0.4	0.1(16)	36.7(16)
부산	청년층(15-29세)	1.9	3.7	1.8	4.3	2.4	1.8	1.1(14)	44.1(10)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9	0.0	-0.2	0.9	0.3	1.0	1.7(4)	76.6(15)
	고령층(60세 이상)	1.4	1.5	1.5	1.7	2.8	3.6	4.1(12)	39.6(14)
대구	청년층(15-29세)	-0.2	-3.8	-2.3	-0.3	-2.3	2.4	0.7(15)	44.4(9)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8	1.2	0.0	-1.7	-2.8	-0.6	1.2(8)	79.3(8)
	고령층(60세 이상)	1.3	2.1	3.3	3.8	3.8	3.8	3.5(13)	39.3(15)
인천	청년층(15-29세)	2.2	2.6	5.1	5.8	3.3	3.1	5.6(4)	53.3(3)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1.0	0.9	2.0	1.8	0.6	0.7	1.1(9)	78.7(11)
	고령층(60세 이상)	-1.1	-1.4	0.0	0.0	1.7	2.1	1.8(15)	42.8(10)
광주	청년층(15-29세)	-0.4	1.5	5.0	5.8	5.2	2.3	4.0(7)	42.1(15)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6	0.4	1.1	0.5	-0.4	0.1	-0.7(12)	76.8(14)
	고령층(60세 이상)	1.5	1.9	1.9	3.0	4.4	4.5	4.5(10)	41.3(12)
대전	청년층(15-29세)	2.2	0.8	-0.5	2.1	5.9	5.7	7.1(3)	49.8(5)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8	-1.0	0.1	0.9	1.1	0.8	0.5(10)	78.9(9)
	고령층(60세 이상)	1.1	1.4	2.0	4.4	6.5	6.3	5.8(8)	42.5(11)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울산	청년층(15-29세)	1.5	2.8	2.8	0.5	0.4	-2.2	1.8(12)	44.0(11)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4	1.7	2.3	2.8	1.2	1.7	1.9(2)	75.4(16)
	고령층(60세 이상)	2.9	0.8	0.3	1.3	2.6	1.6	2.7(14)	40.1(13)
경기	청년층(15-29세)	0.5	1.8	1.5	1.4	-1.0	1.0	5.5(5)	53.7(2)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2	0.9	1.0	0.4	-1.2	-0.6	1.3(6)	79.6(5)
	고령층(60세 이상)	0.3	0.6	1.0	3.6	4.5	5.5	7.1(5)	43.8(9)
강원	청년층(15-29세)	1.7	6.8	6.9	8.0	6.6	6.1	4.6(6)	42.7(14)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3	1.1	0.5	2.8	1.4	1.6	1.7(4)	79.7(4)
	고령층(60세 이상)	0.5	5.3	6.6	9.7	9.5	11.6	10.0(1)	50.9(6)
충북	청년층(15-29세)	-0.1	1.7	4.0	2.1	2.3	4.2	7.9(1)	52.8(4)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1	0.5	0.2	0.0	0.6	-0.5	-0.3(11)	80.5(3)
	고령층(60세 이상)	-0.6	-0.7	3.0	5.0	6.1	6.5	9.2(3)	52.2(5)
충남	청년층(15-29세)	-1.4	-3.6	-0.2	0.9	-2.2	-3.8	-0.6(16)	47.6(7)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4	0.5	0.4	0.4	-0.3	-0.1	-0.7(12)	79.6(5)
	고령층(60세 이상)	-0.6	1.9	5.0	5.0	5.8	6.6	6.5(6)	50.9(6)
전북	청년층(15-29세)	0.5	-0.6	-1.7	-0.8	-2.2	1.8	3.9(8)	40.7(16)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2.0	1.2	1.1	1.2	1.2	0.8	1.8(3)	79.4(7)
	고령층(60세 이상)	0.6	-0.3	0.7	3.9	6.7	8.8	8.8(4)	53.7(4)
전남	청년층(15-29세)	0.7	-0.9	0.5	1.0	0.2	-0.5	3.4(9)	43.6(13)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7	-1.6	-1.0	0.3	0.9	1.2	2.1(1)	82.7(2)
	고령층(60세 이상)	1.2	2.3	1.1	2.2	3.1	5.4	6.3(7)	58.5(2)
경북	청년층(15-29세)	-0.7	-1.4	-2.7	-1.5	-2.7	-3.3	1.6(13)	46.7(8)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7	1.3	1.8	1.1	-0.3	-2.3	-1.2(15)	77.9(12)
	고령층(60세 이상)	0.2	-0.2	0.2	1.0	2.8	4.4	4.2(11)	53.9(3)
경남	청년층(15-29세)	3.5	2.4	2.6	3.6	1.6	2.7	3.4(9)	43.7(12)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8	-0.2	0.7	1.3	-0.3	-0.9	-1.1(14)	77.1(13)
	고령층(60세 이상)	2.2	2.3	3.5	3.8	7.0	9.1	9.6(2)	50.5(8)
제주	청년층(15-29세)	2.0	4.3	2.0	0.2	-1.6	-0.7	2.2(11)	48.8(6)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1	2.2	-0.1	-0.9	-2.5	-1.6	-1.4(16)	83.6(1)
	고령층(60세 이상)	1.5	0.7	-2.2	3.1	3.8	4.4	5.0(9)	5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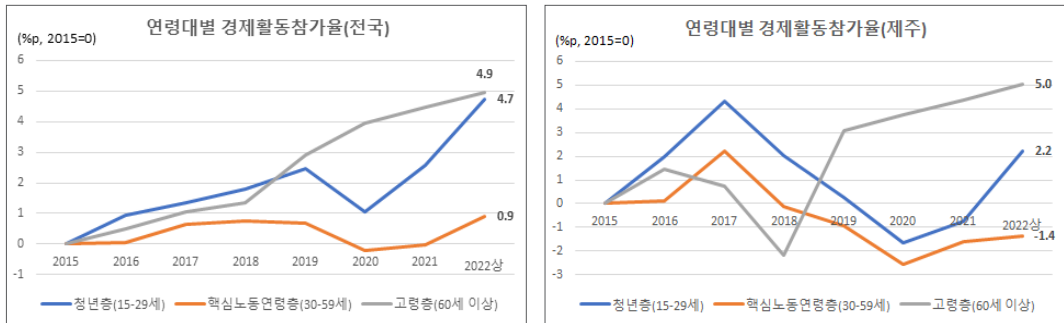
주: 1) 변화는 2015년 대비 해당연도(2022년은 상반기 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을 나타냄

2) 수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나타냄

*괄호안의 값은 지자체별 순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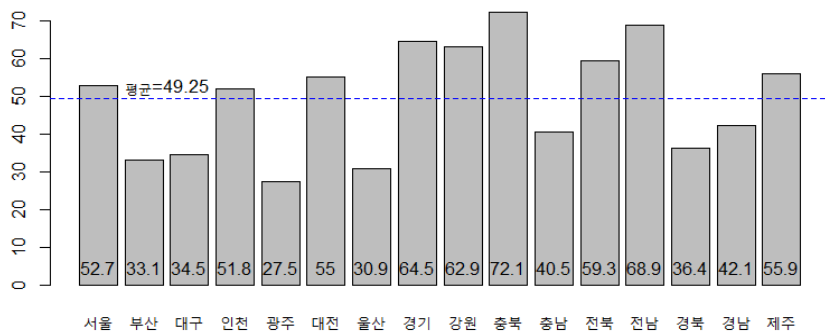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한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종합한 연령대별 종합지수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⁶⁾ 충북이 72.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68.9), 경기(6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는 55.9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등 7개 지자체는 연령대별 전국 평균 49.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 종합지수



6)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과 변화를 종합한 종합지표를 작성하면 수준 또는 변화만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수준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장점이 있는데 수준은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고 변화는 2015년 대비 2022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를 나타냄.

Ⅲ. 성별 노동공급

〈표 2〉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및 16개 시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 및 2022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한 노동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성별 및 지자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노동공급은 (〈그림 3〉 참조) 성별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19로 일부 축소되어 2022년에 2015년 대비 0.7%p 감소함으로써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2.3%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19로 일부 축소되었으나 2022년에 2015년 대비 2.3%p 증가함으로써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0.7%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노동공급은 (〈그림 3〉 참조) 성별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 이후 반등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19로 크게 축소되어 2022년에 2015년 대비 1.2%p 감소함으로써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2.5%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 이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2.5%p 증가함으로써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1.2%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표 2〉에 있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지자체별로 비교한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주가 76.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76.4%), 충북(7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이 2.0%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0.9%p), 전남(0.8%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1.2%p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주가 6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59.3%), 강원(58.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원이 6.5%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5.2%p), 울산 및 전남(4.8%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2.5%p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p, 2015=0)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전국	남자	-0.1	0.0	-0.4	-0.6	-1.5	-1.5	-0.7	73.4
	여자	0.3	0.8	1.0	1.6	0.9	1.4	2.3	54.2
서울	남자	-0.4	-0.3	-1.3	-1.3	-2.4	-2.4	-1.9(12)	71.3(12)
	여자	0.4	1.2	1.3	1.6	1.5	1.7	1.9(9)	54.7(7)
부산	남자	-0.6	0.2	-1.2	-1.9	-2.4	-2.1	-2.0(14)	67.6(16)
	여자	0.1	0.5	0.1	2.1	1.1	1.0	1.3(13)	49.8(15)
대구	남자	-0.2	-2.2	-2.8	-2.5	-3.0	-1.9	-2.0(14)	70.8(13)
	여자	0.7	1.4	1.3	-0.4	-2.3	-0.2	0.3(16)	51.3(13)
인천	남자	0.8	0.5	0.4	-0.7	-1.8	-1.7	-1.0(8)	74.9(6)
	여자	0.4	0.2	2.3	2.6	1.5	0.7	0.9(14)	54.0(8)
광주	남자	-0.4	-0.9	-0.2	-0.4	-1.7	-2.1	-1.9(12)	69.5(14)
	여자	-0.3	1.9	3.1	2.9	3.1	2.0	1.6(11)	51.3(13)
대전	남자	-1.2	-1.4	-1.8	-0.1	0.4	-0.2	0.3(4)	73.0(9)
	여자	1.1	-0.1	0.8	1.3	2.8	2.5	1.8(10)	53.0(12)
울산	남자	-0.6	-1.3	-2.3	-3.0	-3.2	-5.7	-4.9(16)	72.3(10)
	여자	1.7	3.8	4.7	5.0	3.2	4.0	4.8(3)	48.4(16)
경기	남자	-0.1	0.4	0.0	-0.7	-1.9	-1.7	0.2(5)	76.4(2)
	여자	0.0	0.4	0.3	0.8	-1.1	0.1	2.6(6)	55.0(6)
강원	남자	-0.4	2.3	2.2	4.0	2.5	1.8	-0.2(6)	68.2(15)
	여자	0.6	3.4	3.2	5.6	4.4	6.0	6.5(1)	58.0(3)
충북	남자	-1.2	-0.6	1.7	0.8	0.6	0.1	2.0(1)	75.9(3)
	여자	0.3	0.3	-0.2	0.6	1.5	1.4	2.5(7)	56.9(4)
충남	남자	-0.2	-0.3	-0.1	-0.5	-1.7	-1.9	-1.6(10)	75.0(5)
	여자	-1.4	-0.5	2.1	2.4	1.8	1.6	1.5(12)	53.8(9)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전북	남자	0.9	-0.1	-0.2	-0.1	0.0	0.7	0.9(2)	71.8(11)
	여자	1.0	-0.1	-0.4	1.5	2.3	3.9	5.2(2)	55.2(5)
전남	남자	-0.5	-1.5	-1.3	-0.6	-0.4	0.1	0.8(3)	75.6(4)
	여자	0.8	0.8	0.7	1.7	2.0	3.0	4.8(3)	59.3(2)
경북	남자	-0.1	-0.6	-0.8	-0.9	-1.5	-2.1	-1.6(10)	74.8(7)
	여자	0.3	0.4	0.6	0.5	0.0	-0.8	0.9(14)	53.4(10)
경남	남자	1.0	1.0	1.5	0.9	-0.2	-0.7	-0.7(7)	73.3(8)
	여자	-0.1	0.0	0.6	2.0	1.9	2.7	2.7(5)	53.2(11)
제주	남자	0.1	0.8	-0.8	-0.8	-3.6	-2.3	-1.2(9)	76.6(1)
	여자	1.7	4.0	0.6	0.8	1.5	1.7	2.5(7)	6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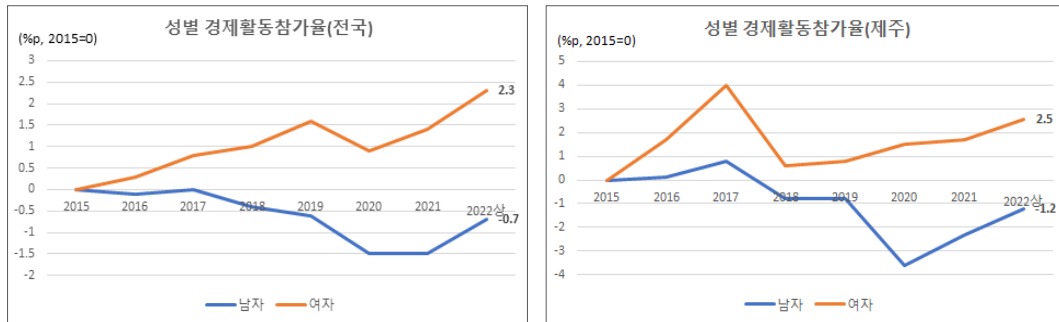
주: 1) 변화는 2015년 대비 해당연도(2022년은 상반기 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을 나타냄

2) 수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나타냄

*괄호안의 값은 지자체별 순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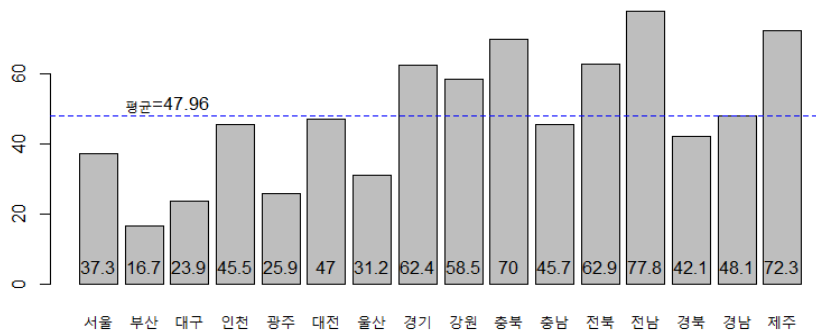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한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종합한 성별 종합지수를 살펴보면([그림 4] 참조) 전남이 77.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72.3), 충북(7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성별 전국평균 47.9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 종합지수



IV. 교육정도별 노동공급

〈표 3〉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및 16개 시도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 및 2022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한 노동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정도별 및 지자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노동공급 확대 양상은(〈그림 5〉 참조) 교육정도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졸이하 및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며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졸 및 전문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작은 폭의 변동을 보이며 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0.7%p 증가함으로써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2%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2021년 중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0.4%p 감소하여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0.7%p)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나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2%p)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중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2021년 중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0.5%p 감소하여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0.7%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2%p) 대비 작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1.6%p 감소하여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0.7%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2%p) 대비 다소 작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2022년에 2015년 대비 2.2%p 감소하여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0.7%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 노동공급 확대 양상은([그림 5] 참조) 교육정도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졸이상, 전문대졸 및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변동폭과 코로나19의 영향은 다르지만 2015년 대비 비슷한 폭이 하락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반면에 중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일시 반등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까지 작은 변동을 보이다가 코로나19 이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2.0%p 증가함으로써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6.5%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이후 2022년에 2015년 대비 1.9%p 감소하여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0%p) 및 중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6.5%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문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대비 2.2%p 감소하여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0%p) 및 중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6.5%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2년에 2015년 대비 2.3%p 감소하여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0%p) 및 중졸의 경제활동참가율(-6.5%p) 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 일시 반등한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하였고 2022년에 2015년 대비 6.5%p 감소하여 초졸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2.0%p) 대비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표 3〉에 있는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지자체별로 비교한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졸이하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남이 51.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47.7%), 전북(4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원이 5.1%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3.6%p), 경남(2.1%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2.0%p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남이 52.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51.0%), 경북(5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40.7%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이 5.3%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4.8%p), 광주(4.3%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6.5%p로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제주가 73.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71.3%), 충북(6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가 1.3%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0.9%p), 강원(0.1%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2.3%p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북이 86.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82.8%), 대전(8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이 10.9%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3.1%p), 대전(3.0%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2.2%p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인천이 82.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81.6%), 전남(80.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79.8%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이 2.8%p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2.3%p)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는 -1.9%p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2015년 대비)

(단위 : %, 2015=0)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전국	초졸이하	-0.7	-1.4	-2.0	-1.2	-1.1	-1.3	-2.2	35.6
	중졸	-0.7	-0.1	0.1	0.7	0.4	-0.7	-0.5	39.6
	고졸	-0.1	0.0	-0.6	-1.0	-2.7	-2.6	-1.6	63.7
	전문대졸	0.5	0.4	0.4	-0.1	-0.9	-0.5	-0.4	78.4
	대졸이상	-0.1	0.1	0.0	-0.2	-1.0	-0.6	0.7	78.3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서울	초졸이하	-0.6	-1.5	-2.8	-0.5	-2.5	-5.0	-5.9(14)	26.8(16)
	중졸	-2.9	-2.5	-3.3	-2.4	-4.2	-5.1	-5.9(15)	33.8(14)
	고졸	0.2	-0.1	-1.8	-3.4	-4.0	-3.9	-3.6(13)	57.5(16)
	전문대졸	-2.2	-0.4	0.1	0.2	-0.3	-0.6	-2.7(13)	76.6(12)
	대졸이상	0.7	1.5	1.4	1.7	1.3	1.9	2.8(1)	77.8(11)
부산	초졸이하	0.4	-0.4	-4.1	-4.1	-2.9	-2.8	-2.8(11)	29.2(12)
	중졸	-1.4	-0.6	-0.3	-1.3	-1.2	-0.4	0.5(9)	40.2(9)
	고졸	-1.1	0.1	-1.1	0.2	-0.7	-2.0	-1.7(10)	57.9(15)
	전문대졸	-2.3	-4.7	-5.2	-5.1	-4.7	-6.1	-5.6(16)	73.4(16)
	대졸이상	1.0	1.3	-0.3	0.0	-2.5	-1.4	-2.3(12)	73.49(16)
대구	초졸이하	2.0	1.4	2.6	0.4	1.1	2.3	-1.7(9)	29.8(10)
	중졸	-0.5	-0.4	-1.3	-0.4	-1.0	-4.2	-3.0(11)	36.1(11)
	고졸	0.3	-1.6	-1.6	-3.3	-5.8	-3.4	-1.9(11)	60.5(12)
	전문대졸	3.0	0.0	-2.5	-3.2	-3.4	-1.9	-3.4(14)	75.8(14)
	대졸이상	-1.0	-0.2	-1.0	-2.0	-4.3	-3.4	-3.0(16)	76.3(14)
인천	초졸이하	0.1	-2.7	-5.4	-5.7	-5.7	-5.8	-6.1(15)	29.0(13)
	중졸	0.9	-0.5	-1.0	-0.6	0.1	-2.0	-4.7(14)	35.3(12)
	고졸	1.1	0.3	2.2	0.4	-1.5	-1.6	-1.3(8)	67.0(5)
	전문대졸	1.3	2.5	2.4	3.0	1.1	0.1	2.1(4)	79.1(8)
	대졸이상	-1.0	-1.3	0.6	0.6	1.1	1.3	2.8(1)	82.8(1)
광주	초졸이하	0.2	0.7	-1.4	-1.3	-4.7	-5.2	-5.5(13)	29.5(11)
	중졸	2.6	5.2	3.6	4.3	4.9	3.6	4.3(3)	33.8(14)
	고졸	0.6	1.2	2.2	0.4	0.5	1.1	1.3(1)	60.6(11)
	전문대졸	-2.8	-2.2	-0.2	1.1	-2.8	-4.2	-4.2(15)	74.1(15)
	대졸이상	-2.3	-2.2	-0.8	-1.9	-1.6	-2.0	-2.7(15)	75.9(15)
대전	초졸이하	-1.1	0.4	-1.6	-0.7	1.2	-1.8	-1.7(9)	30.0(9)
	중졸	-2.9	-6.1	-5.1	-2.0	-3.0	-3.1	-3.9(13)	34.5(13)
	고졸	0.4	-1.5	-1.6	0.5	2.6	0.8	-1.5(9)	59.5(14)
	전문대졸	-1.5	-0.5	1.4	1.4	2.8	1.3	3.0(3)	81.1(3)
	대졸이상	0.4	-0.8	-0.1	0.2	-0.6	-1.2	-2.5(13)	76.5(13)
울산	초졸이하	3.8	2.0	1.4	-0.8	-1.7	-3.4	-1.2(8)	28.8(14)
	중졸	1.9	4.5	4.4	7.7	5.7	3.6	1.1(6)	32.6(16)
	고졸	0.4	0.6	0.0	-1.1	-3.5	-5.5	-4.9(16)	60.5(12)
	전문대졸	0.4	2.4	4.7	2.4	1.4	3.0	3.1(2)	78.7(9)
	대졸이상	-0.2	1.5	2.4	1.2	-0.1	-0.6	0.9(6)	77.1(12)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경기	초졸이하	-2.1	-3.7	-3.9	-2.5	-4.1	-5.2	-6.2(16)	27.6(15)
	중졸	-0.5	0.5	0.8	1.7	1.0	0.1	1.0(8)	37.5(10)
	고졸	-0.6	0.4	-0.4	-1.2	-4.1	-3.3	-0.7(5)	66.3(6)
	전문대졸	2.9	1.4	1.0	-0.5	-1.8	0.0	1.5(6)	80.1(6)
	대졸이상	-0.9	-0.8	-1.4	-1.5	-2.5	-1.9	1.0(5)	79.2(7)
강원	초졸이하	-0.4	4.3	2.2	5.4	5.1	7.7	5.1(1)	45.3(4)
	중졸	0.3	1.0	0.9	1.0	1.1	0.1	-3.7(12)	41.8(7)
	고졸	-1.8	2.6	1.3	4.0	0.9	1.1	0.1(3)	64.2(9)
	전문대졸	1.5	2.4	1.2	3.1	-1.4	-1.0	-1.9(10)	76.7(11)
	대졸이상	0.0	-1.8	0.9	0.9	0.8	-0.1	2.2(4)	81.6(2)
충북	초졸이하	-2.6	-4.1	-0.4	1.3	1.1	-0.3	1.6(5)	44.0(5)
	중졸	0.1	-0.1	2.2	0.0	2.3	1.3	5.3(1)	51.0(2)
	고졸	-1.3	-1.7	-2.2	-2.3	-1.8	-0.8	-1.0(6)	68.5(3)
	전문대졸	0.2	1.4	1.5	-0.8	0.2	-2.1	-1.2(8)	78.6(10)
	대졸이상	-0.1	0.3	-0.3	-0.8	-1.8	-2.8	0.6(7)	80.2(4)
충남	초졸이하	-1.4	-0.6	1.1	0.5	0.7	2.3	1.2(6)	42.6(7)
	중졸	0.3	0.7	5.4	7.2	7.4	4.3	3.2(5)	46.4(4)
	고졸	-2.4	-2.2	-1.8	-0.6	-3.1	-4.1	-3.7(14)	68.0(4)
	전문대졸	0.1	4.0	0.0	-3.7	-2.3	-1.4	-1.6(9)	79.8(7)
	대졸이상	0.9	-0.5	0.9	-3.2	-3.7	-3.3	-2.5(13)	78.7(8)
전북	초졸이하	-0.2	-0.5	0.4	1.4	3.2	2.4	3.6(2)	46.7(3)
	중졸	1.6	-0.3	-4.4	-1.6	2.9	2.5	-0.1(10)	42.3(6)
	고졸	0.3	-1.9	-0.1	0.2	-2.5	-1.5	-0.5(4)	62.8(10)
	전문대졸	3.0	0.6	-1.8	-0.6	2.0	7.7	10.9(1)	86.2(1)
	대졸이상	-1.2	-1.1	-1.3	-0.5	0.5	1.6	0.2(8)	78.4(9)
전남	초졸이하	0.2	-0.5	-2.8	-1.5	-1.4	-0.4	1.0(7)	51.6(1)
	중졸	-2.2	-1.8	-0.4	-1.3	0.1	-0.2	1.1(6)	52.7(1)
	고졸	-0.2	-2.2	-1.9	-1.5	-1.7	-0.6	0.9(2)	71.3(2)
	전문대졸	-0.1	-0.9	-0.6	2.7	0.1	3.4	0.9(7)	80.3(5)
	대졸이상	2.0	2.4	2.2	1.8	1.6	0.1	2.3(3)	80.8(3)
경북	초졸이하	-1.6	-3.0	-2.6	-1.5	-1.4	-0.1	-3.4(12)	43.8(6)
	중졸	-0.1	0.7	1.1	0.5	2.0	0.4	3.7(4)	50.8(3)
	고졸	0.6	-0.6	-1.0	-2.3	-5.3	-5.9	-4.6(15)	65.8(8)
	전문대졸	0.8	0.8	2.7	2.6	2.1	-1.1	1.7(5)	80.4(4)
	대졸이상	-1.0	-0.4	-1.0	-1.1	-1.7	-2.6	0.0(9)	79.4(6)

지역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¹⁾	2022 ²⁾
경남	초졸이하	-0.6	-2.1	-0.7	-1.8	2.9	3.8	2.1(3)	39.4(8)
	중졸	-0.5	1.4	3.3	3.0	2.3	3.1	4.8(2)	44.6(5)
	고졸	1.3	1.5	0.6	2.0	0.1	-1.2	-1.1(7)	66.3(6)
	전문대졸	-1.1	-0.5	2.4	1.7	0.0	0.1	-2.4(12)	76.4(13)
	대졸이상	-1.1	-2.0	-2.0	-1.7	-3.1	-2.1	-1.9(10)	78.2(10)
제주	초졸이하	-0.3	1.5	-1.1	2.4	6.4	5.8	2.0(4)	47.7(2)
	중졸	-0.6	-1.0	-2.8	0.0	-2.7	-6.6	-6.5(16)	40.7(8)
	고졸	0.4	1.3	-2.4	-3.8	-6.5	-4.8	-2.3(12)	73.2(1)
	전문대졸	2.1	2.2	0.3	-0.9	-1.3	-1.9	-2.2(11)	82.8(2)
	대졸이상	0.4	3.7	0.9	-1.2	-2.6	-1.2	-1.9(10)	7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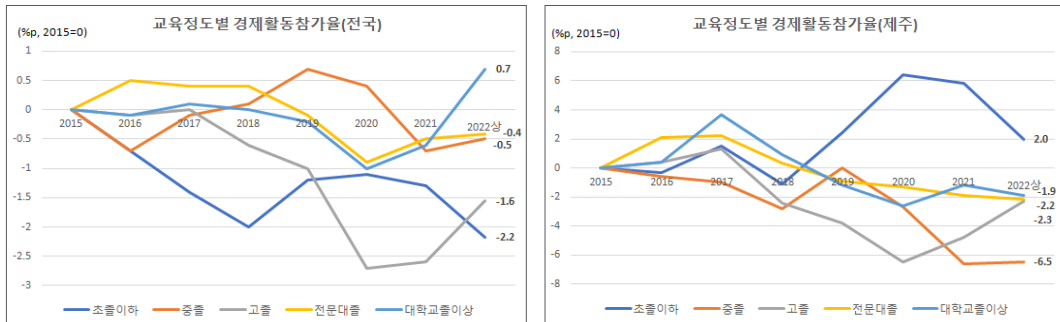
주: 1) 변화는 2015년 대비 해당연도(2022년은 상반기 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을 나타냄

2) 수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나타냄

*괄호안의 값은 지자체별 순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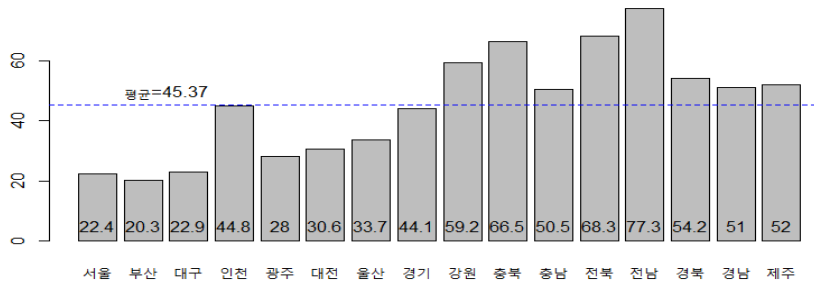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한편,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 및 변화를 종합한 교육정도별 종합지수를 살펴보면([그림 6] 참조) 전남이 77.3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68.3), 충북(66.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는 52.0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등 8개 지자체는 교육정도별 전국 평균 45.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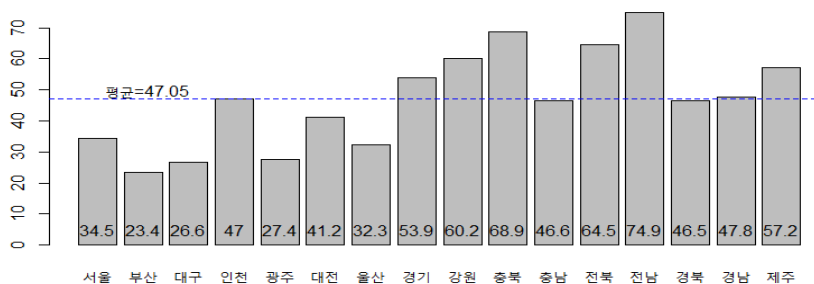
[그림 6]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 종합지수



V. 종합

16개 시도의 2015년 대비 2022년(상반기 기준)의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및 2022년(상반기 기준)의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종합한 경제활동참가율 종합지수를 살펴보면([그림 7] 참조) 전남이 74.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68.9), 전북(6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주는 57.2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교육정도별 전국평균 47.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 종합지수로 16개 시도의 총체적인 노동공급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경기도는 상위등급에 속하고,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대전은 중위등급에 속하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서울은 하위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 종합지수



VI. 정책 시사점

송상윤·배기원(2022)은 우리나라 연령대별 노동공급 확대 현상을 살펴보고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전국 및 16개 시도의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노동공급 확대 여부를 살펴보고 전국과 제주의 비교 및 지자체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공급 확대 여부를 전국과 제주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확대 요인 분석에 의한 시사점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송상윤·배기원(2022)의 우리나라 연령대별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결과 및 본고의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노동공급 확대 여부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국 및 제주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를 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과 제주 모두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를 보이는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 전국 4.7%p, 제주 2.2%p로 전국이 제주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경우 청년층 중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참가율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는 전국보다 낮고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높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제주지역에 고학력자들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⁷⁾ 창출을 통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과 제주 모두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를 보이는 있는데 이를 양적으로 비교해 보면 고령층의 경우 전국 4.9%p, 제주 5.0%p로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 비재정적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 재정적 사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졸이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전국과 거의 같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59.5%로 전국 45.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초졸이하 및 중졸의 경제활동참

7) 좋은 일자리라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말함.

가을 수준이 각각 47.7% 및 40.7%로 고졸이상의 고학력 고령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저학력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니어 인재 교육 및 일자리 매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 및 제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증감)를 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과 제주 모두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및 변화(증감)를 양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54.2%, 제주 64.6%로 제주가 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전국 2.3%p, 제주 2.5%p로 전국과 제주가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경우 20대 중후반 여성의 미혼 비율 상승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5~29세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고, 25~29세 미혼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령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의 영향으로 혼인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산·육아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결혼→출산→육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거, 산후조리원, 유아보육기관 등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기춘, “종합지표 작성 방법 및 적용: 우리나라 지역별 좋은 일자리 지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2019년 2월.
 송상윤, 배기원,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2-35호, 2022년 9월 13일.
 신승배, “코로나19와 제주지역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연구보고서 2022-2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년 12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8) 고졸 73.2%, 전문대졸 82.8%, 대졸이상 79.8%로 나타남.